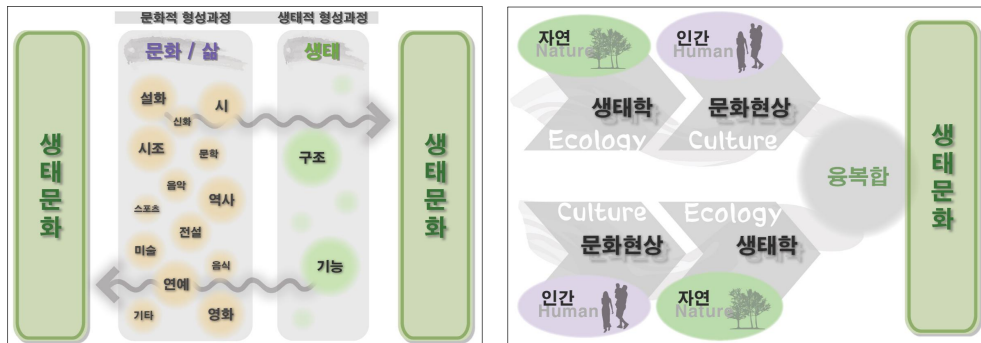


말로 표현하면 생태학적 대상을 문화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또는 문화적 현상을 생태학적 원리로 해석하는 융복합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박미옥, 2014).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지향하기 위해 융복합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융합한 생태문화도시라 함은 생태학의 문화적 전환을 발상으로 생태학적 적응에 관한 분야라는 점에서 문화적이며, 전체론적이며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생태학의 문화적 전환이란 생태자원과 사회전반의 생활양식 및 한 사회 집단의 정신적, 물리적, 지적 특징과의 연계 및 융복합적 조화를 말한다.



<그림 5> 융복합적 생태문화 형성

이러한 융복합적 조화는 생태요소와 문화적 현상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도시의 원동력이 된다.

생태자원과 문화양식이 융복합된 도시구성요소의 현명하고 건전한 이용과 주민참여의 다양함이 보장되는 도시를 ‘생태적 문화도시’ 즉 ‘생태문화도시’라 정의 하고자 한다.